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7월 4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자부품과 김정일 과장(02-2110-5390), 박용민 사무관(5391)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이끈다!

- 공정거래 강조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확대 유도키로 -
- 정기적인 실적·성과 점검으로 수요 대기업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모범사례 공유 -

□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대기업의 경쟁력을 중소 협력업체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기업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발전지향적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업계 최초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시도**된다.

○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연구개발, 공정거래, 경영 지원 등 중소 협력업체가 희망하는 6大 분야*에 걸쳐 매년 동반성장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한 사례는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 기술개발, 공정거래, 구매·해외진출, 경영지원, 인력, 협력성과 공유

□ 산업통상자원부는 7.4(목)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삼성전자, 주성엔지니어링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대·중견·중소기업 대표 20개社 및 전자부품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협력 생태계 협약」** 체결식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대기업(5社)	삼성전자(우남성 사장), SK하이닉스(박성욱 사장), 삼성디스플레이(김기남 사장), LG디스플레이(정철동 부사장), 동부하이텍(최창식 사장)
중소·중견기업(15社)	주성엔지니어링(황철주 대표), 원익(이용환 대표), 엘지실트론(변영삼 대표), 톱텍(이재환 대표), 탑엔지니어링(김원남 대표), 뉴옵틱스(이영득 대표), 메카로닉스(이재정 대표), 엠이엠씨코리아(조찬래 대표), 피에스케이(박경수 대표), 나온테크(김원경 대표), 동원파츠(조덕형 대표), 이엠아이(이승원 대표), 동양산업(박용해 대표), 대한테크(강민구 대표), 에프티에스(정호진 대표)
연구기관(2社)	전자부품연구원(김경원 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나경환 원장)

○ 이번 협약의 의의를 살펴보면, 그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한 동반성장 대책*이 후속조치 미흡, 실적점검 체계 부재 등으로 중소 장비·소재 협력업체에게 체감할 만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

* 디스플레이 상생협력 추진전략('07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동반성장 종합대책('10년) 등

○ 기존에 추진해온 납품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제재 조치와 병행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기술로드맵 공개·유휴특허 공유·공동 R&D 등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 도입에 공감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부품산업으로서 생산단계가 단순하고 협력업체 수가 他산업에 비해 비교적 적은 반면, 수요·협력기업간 기술결합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수적

□ 아울러, 협력업체들이 대기업들의 기술·자금·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대기업들도 협력기업의 경쟁력 확보 없이는 향후 세계 시장에서 세계 1위 위상 유지가 곤란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금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결과**('13.1~3월, 전업종 대상, 동반위) : 협력기업들은 '①공정거래' 및 '②동반성장 체제' 분야보다 실질적 혜택이 부여되는 자금, 공동 R&D 등 '③협력' 분야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변

*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설문 조사 결과**('13.5.16~6.30, 협력기업 100여개, 산업부) : 응답자의 75%는 업계의 동반성장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①투자계획 등 대기업의 정보제공(42%), ②공동 R&D(21%), ③자금·인력 지원(13%) 등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주길 희망

□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이번 협약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주요 특징 >

기존 동반성장 대책	금번 협약
①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중점 -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근절과, 기업 내 동반성장 체계(조직 등) 구축에 보다 중점	**① 협력업체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 기술로드맵 공개, 유휴특허 이전(유·무상), 공동 연구개발, 국산화, 자금·인력 확보 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기회 창출을 대기업이 지원

② 기업의 개별애로 접수 및 해소에 그침 -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한 사례 발굴 및 해소에 치중한 나머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안 제시 미흡	**② 모범사례(Best Practice) 발굴 및 확산** - 각 대기업별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거둔 성과 및 사례를 발굴하여 他社 및 他業種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③ 실적 조사·파악 등 후속조치 미흡 - 대책 이행을 각 기업 또는 협회에 맡긴 결과, 실적 측정 및 피드백이 부진하여 극히 일부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에 국한	**③ 정기적인 민·관 모니터링 체계 가동** -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기적인 실적 발표·점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촉진

□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는 올 가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각각 「민·관 합동 동반성장 실적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에도 매년 1~2회씩 정기적으로 모범사례 발굴 및 애로해소 노력을 계속키로 합의하였다.

* '13년 상반기 실적 점검 : 반도체 산업발전위원회(9월), 디스플레이 상생협력위원회(10월)

< 주요 점검 항목(예시) >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생태계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리 대·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하고,

○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공생발전의 정신에 입각해 다른 산업의 모범이 되는 새로운 동반성장 사례를 만듦으로써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에 앞장서 주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붙임>
1. 『반도체·디스플레이 협력 생태계 협약』 체결식 개요
2. 주요 참석자 현황
3. 『반도체·디스플레이 협력 생태계 조성 협약문』
4.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대·중소 협력관계

붙임1 『반도체 · 디스플레이 협력 생태계 협약』 체결식 개요

□ 일시 / 장소 : '13.7.4(목), 07:30~08:30 / 엘타워(양재)

□ 참석 : 장관, 대기업(5社*), 1·2차 협력기업(15社) 대표, 관련기관 등

* 삼성전자(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동부하이텍

□ 진행(안)

시간	진 행	비고
07:30~07:35(5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07:35~07:45(10분)	업계 상생협력 활동 현황 보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협회(공동)
07:45~07:50(5분)	협약체결 배경 및 향후 계획 보고	전자부품과장
07:50~07:55(5분)	격려사	장관
07:55~08:10(15분)	환영사	반도체 업계 대표
		디스플레이 업계 대표
		중소기업 대표
08:10~08:25(15분)	협력 생태계 조성 협약식	대기업(5社) 1·2차 중소기업(15社) 연구기관(전품연/생기원)
08:25~08:30(5분)	기념촬영	
08:30~09:00(30분)	조식	

□ 분야별 후속 점검회의 개최 및 실적 발표

○ 반도체산업발전위원회(9월), 디스플레이 상생협력위원회(10월) 등

붙임2 주요 참석자 현황

구 분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윤상직	
반도체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 장	우남성	
		원익아이피에스	대 표	이용환	장비(1차)
		피에스케이	대 표	박경수	장비(1차)
		이엠아이	대 표	이승원	설비(2차)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사 장	박성욱	
		주성엔지니어링	대 표	황철주	장비(1차)
		메카로닉스	대 표	이재정	소재(1차)
		나온테크	대 표	김원경	장비(2차)
	동부하이텍	동부하이텍	사 장	최창식	
		엘지실트론	대 표	변영삼	소재(1차)
		엠이엠씨코리아	대 표	조찬래	소재(1차)
		동원파츠	대 표	조덕형	설비(2차)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사 장	김기남	
		톱텍	대 표	이재환	물류(1차)
		대한테크	대 표	강민구	설비(1차)
		에프티에스	대 표	정호진	설비(2차)
	LGD	LG디스플레이	부사장	정철동	
		탑엔지니어링	대 표	김원남	장비(1차)
		뉴옵틱스	대 표	이영득	소재(1차)
		동양산업	대 표	박용해	소재(2차)
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원 장	김경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 장	나경환	

붙임3 반도체 · 디스플레이 협력 생태계 조성 협약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삼성디스플레이 및 LG디스플레이(이하 "수요기업"이라 한다)와, 주성엔지니어링, 원익아이피에스, 동원파츠, 에프티에스 및 동양산업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 및 생산기술연구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 산·학·연 일동은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소 상생협력에 바탕을 둔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임에 공감하고, 이에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기술개발)** 수요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협력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협력기업 및 연구기관은 이에 적극 협력·참여함으로써 호혜적인 기술협력 성과 창출에 노력한다.

2. **(공정거래)** 수요기업은 자사의 경영실적이 협력기업 전반에 합리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납품 단가·현금 결제·지급 기일 등 각종 거래 조건이 협력기업에 우호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구매·해외진출)** 수요기업은 협력기업이 생산하는 장비 및 소재의 구매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협력기업은 우수한 제품의 개발·공급을 통해 수요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함께 노력한다.

4. **(경영지원)** 수요기업은 기술개발 계획, 지식재산권, 국내외 시장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협력기업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을 지원하고, 자금 공급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5. **(인력)** 수요기업과 협력기업은 상호 부당한 방법으로 인력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이직·전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요기업과 연구기관은 협력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6. **(협력성과 공유)** 수요기업과 협력기업은 대·중소 동반성장의 혜택이 협력기업 전반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산업혁신 3.0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학·연 일동은 매년 정기적으로 위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점검하고, 그 실적과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한다.

2013년 7월4일

붙임4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산업의 대 · 중소 협력관계

1 타 산업에 비해 단순한 수급구조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는 **최종제품이 아닌 부품산업**으로서 **생산단계가 단순***하면서, 수요·협력기업간 기술 결합도가 높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 생산(소자 · 패널대기업)
(자동차) 소재 → 3차 부품업체 → 2차 → 1차 → 완성차업체

○ 이에 따라, **1~3차 협력업체** 숫자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적은 상황**이며 협력업체 교체 주기도 상대적으로 긴 것이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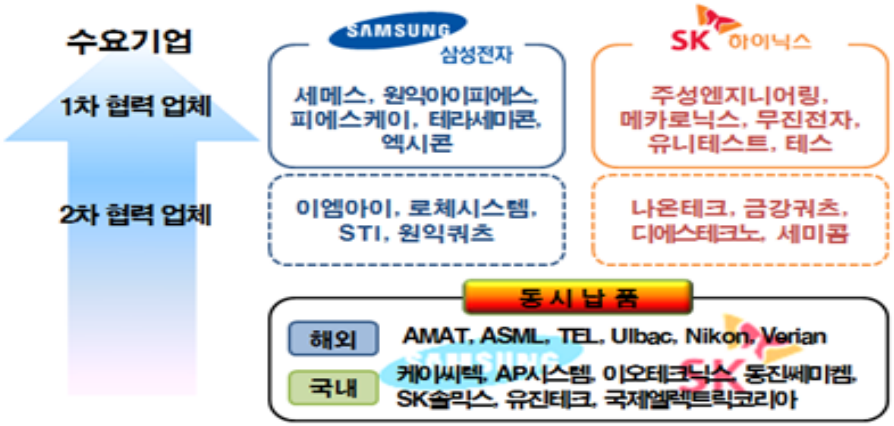
* 1~3차 협력업체수 : 반도체 1000, 디스플레이 500, 자동차 3,000, 모바일 2,000여개 등

2 대-중소기업간 수직계열화 구조

○ 소자 · 패널 대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장비 · 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적극적으로 도모

○ 장치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이 장비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대기업 - 1차 장비업체 간 수직계열화가 더욱 심한** 편

< 반도체산업 계열화 구조 >



< 디스플레이산업 계열화 구조 >



3 핵심 장비 · 재료, 시스템반도체의 높은 해외의존도 지속

○ 국내 협력업체들의 원천기술 부족,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장비·재료, 시스템반도체의 해외의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반도체 장비) 증착기 등 일부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노광기(ASML) · Etcher(AMAT) 등 필수 핵심장비는 여전히 외국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장비 국산화율이 30% 미만에 불과
- (디스플레이 장비) 스퍼터, 글래스 커팅기, 검사장비 등의 국산화가 성과를 거두면서 반도체 대비 비교적 높은 약 50%대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으나, 노광장비(CANON, NIKON) 등은 여전히 해외기업에 의존
- (소재·부품) 장비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한 국산화율(반도체 49%, 디스플레이 62%)을 보이고 있으나, 포토레지스트, 편광필름 등 일부 핵심 소재의 경우 국산화는 매우 미진한 상황

◈ **세계적 수요 대기업**(소자·패널)을 중심으로 한 **Captive Market**이 존재함에 따라, **중소 협력업체의 성장 토양**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나,

○ 견고한 **수직계열화 구조**와 장비·재료·시스템반도체의 **해외의존이 지속**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우려

⇨ **수요기업의 경쟁력을 협력업체에 이전**하고, **수직계열화 완화** 및 **국산화 확대** 등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 노력이 절실**